

20240927 설교자회의(이기영목사)

1. 본문: 여호수아 6:1~7절

제목: 여리고성의 의미(1)

대지 1. 믿음의 40년

2. 이상한 명령

한줄 요약 “가나안 점령에 여리고 성이 첫 번째 전투인 것과 상식적이지 않은 전투 방법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품고 있다.”

연구

성경의 많은 사건 중 고고학이 발달됨으로 더 폭넓은 이해와 해석이 가능해진 사건이 여리고성 전투
입니다. 주석에 보면 ‘당시 여리고성은 상당히 이른 시기에 거주지를 성곽으로 둘러싸고 있는 구조를
가졌으며, 상당한 인구를 자랑했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곽 도시였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그 유적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30피트(9,14m) 높이의 요새화된 탑을 볼 수 있는데, 신석기
시대 것으로 그 도시가 절정에 있었을 때, 존재했던 방어 능력치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 성의 크기와 많은 인구를 밝힘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사실상 이스
라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공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양한 공성장비를 동원하여,
성의 약점들을 공략한다 할지라도, 공성전은 전투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전투입니다. 그런데 전문 전
투 인력을 양성한 것도 아닌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걸기만 하면서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이스라엘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에 가장 어려운 여리고성 공략이 그 첫 번째인 것은 하나님은 이
전투에 어떤 의미를 담으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28절을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
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 성의 규모와 크기가 중요한 것은 정탐꾼들을 통해 자신의 생각대로는 안되겠다
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전투라는 것입
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전투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부분이 3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병법서에도 등장하지
않는 공성전 전투방법입니다. 이는 전투의 방법의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한 의
도를 담고 있는 명령이라고 주석은 밝힙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시험해 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즉 가나안과의 전쟁은 인간적인 전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철저

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상식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100세가 다 되도록 그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본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도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정의를 반대로 풀이해보면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벗어나 첫 전투를 벌이는 곳이 여리고성인 것도, 그 성을 점령하는 방법도 인간적인 상식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선 것도, 하나님은 “이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점령하려고 하셨는지를, 보여줌으로서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범위를 더욱 넓혀주고자 하셨다”는 것과 “믿음을 가진 자의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깨달은 만큼, 경험한 만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한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리고성 전투가 보여주고, 앞으로 가나안 점령에서 보여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 본문: 여호수아 14:6~15절

제목: 땅의 분배의 의미(2)

대지 1. 믿음의 45년

2. 아낙 자손의 헤브론

한줄 요약 “아직 점령하지 못한 헤브론은 이미 45년 전에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갈렙에 의해 점령되었다.”

연구

13장부터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가 시작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복되지 않은 땅을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셨고, 분배한 땅을 반드시 정복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14장은 이런 분위기에서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편의 분배는 실질적인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14:6절에서 ‘그때에’ 갑자기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갈렙은 12정탐꾼일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였는지를 여호수아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맺은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1:36절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여기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45년 전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뜨겁고 열정적인 믿음’이었다면, 12절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통하여, 갈렙의 믿음은 ‘더 분명하고 더 명확한 믿음으로 성숙해 있고, 성장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날카롭게 단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유일한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13:1절에서 ‘나이가 많고 늙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분명 여호수아에게는 한계와 제약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더 이상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10절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갈렙은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들과 당시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살아갈 믿음의 다음세대들에게 멋진 신앙의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다림과 훈련의 시간을 주신 것은 힘들기만하고,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갈렙이 크고 견고하며, 여기에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헤브론을 달라고 한 것은 그가 정탐꾼으로 정탐하고 정복할 수 있다고 보고한 그 땅을 진짜로 점령할 수 있다는 증명해 보이겠다 함이라고 해석합니다. 자신의 안목과 실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봤던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증명한 것입니다. 갈렙은 마치 이 순간을 위해 85년을 기다린 사람처럼 너무 당당하게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평생 아낙 자손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손에 맡기실 것을 믿으며, 그 믿음을 증명할 시간과 기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갈렙과 유다를 통하여 가나안에서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헤브론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죽을 때가 다 되어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던 모세처럼 갈렙은 85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전쟁의 한 복판에서 평생에 버르고 버린 아낙을 물리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지날 때는 너무 더딘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통해 광야가 의미 없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에게 헤브론을 점령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헤브론을 점령하기까지 45년을 기다리는 게 더 어렵지 않았을까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광야의 시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 시간이 의미 없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모든 시간이 소중하고 복됨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3. 본문: 여호수아 24:14~24절

제목: 선택의 의미(3)

대지 1. 오늘 택하라

2. 맹세의 함정

한줄 요약 “여호수아의 결단 촉구는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긍정적이었지만 이후 이스라엘은 맹세에 함정에 빠진다.”

연구

여호수아는 마지막 장에서 신명기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구를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버틀러라는 학자는 24:19~20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다른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술 중 가장 충격적인 진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누군가를 질투하 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질투하신다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을 모아 놓고 강조한 내용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도 이스라엘에게 복됨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질투하셔서 너희를 멸하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어 어른들이 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나 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가치들은 사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짜라는 것은 그것들이 ‘영생을 만들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짜를 이루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에 목을 맵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어찌면 신앙인이 된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통해 매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오늘 택하라’는 요구는 ‘단순히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고르는 문제를 이스라엘에게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상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택할지는 사실 이스라엘의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런 선택에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증인’이 됩니다. 이는 자신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 강제로 떠민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증인이 되기를 자처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이전보다 더욱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다른 증인까지도 필요 없이 자신들 스스로가 자신의 유죄에 증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선택할 거냐? 우리도 동일하게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해보지만,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보지만, 이스라엘도 실패하고, 우리들도 실패합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은 ‘결단코’라는 맹세가 가진 함정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배신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맹세를 해보지만 우리의 힘으로 증인의 삶을 살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선택하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존망이 걸린 문제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책임감 있게 살아내야 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증인이 되어 책임 있는 삶을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책임 있는 성도의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4. 본문: 사사기 2:8~15절

제목: 여호와를 알지 못함의 의미(4)

대지 1. 악을 행함

2. 여호와의 손

한줄 요약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치셨다.”

연구

성경은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실패를 역사에 고스란히 남겨두었습니다. 이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라면 하나님께 순종했을 텐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못했구나”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성경이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를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드는 생각입니다.

8절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이게 현재 시점이 아니라 과거의 시점입니다. 과거라는 것은 과거와는 다른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이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의 철 병거’가 문제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그분과 맺은 언약’보다, ‘경제적인 실익을 추구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며 악을 행했다’는 말은 그들이 여호수아와 약속하여 결단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다짐과 결단을 실패한 것입니다. 왜 실패했냐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였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 실익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12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일한 신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신들 중에 하나로 전락한 것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한몫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목축업의 신이라고 생각했고,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부터 시작한 농사를 잘하여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결국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온 죄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섭니다. 그리고 사사기 내내 이런 단절은 반복이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실히 일하십니다.

15절에서 '여호와와 그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고 합니다. 시편에서 여호와와 그의 손은 어려움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와 그의 손은 이스라엘을 징개하시는 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기 내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반역과 하나님의 성실한 일하심이 불협화음을 내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시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뜻을 담아내시기 위하여 그들이 당신과 단절되는 것조차 허용하셨다는 것을 사사기에서 읽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나면 이스라엘이 구별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다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도움의 손길이었던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이스라엘을 고난에 빠드리게 하는 손길로 변모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을 어려움에 빠뜨린 그 손길도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그들을 더욱 정결케 하시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훈계요, 권면이며, 이스라엘과 우리를 위한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백성들에게는 이런 권면과 훈계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려 최선을 다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돌아설 때,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사기와 이스라엘 역사 내내 확인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복된 존재입니다.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